

# CineMind 11 주차 앱 종합 진단서 (교수 피드백)

진단일: 2025년 11월 15일 대상: 11주차 앱 진행상황 PDF

팀원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. API 연동을 성공하고 각 탭에 기능을 구현한 것은 '개발'의 1 단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'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서비스'를 만드는 0 단계는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.

현재 이 앱의 가장 큰 문제는 \*\*"정체성의 혼란"\*\*입니다. 여러분이 해결하겠다던 '넷플릭스 증후군'은 "볼 게 너무 많아서 뭘 볼지 모르는 문제"입니다. 그런데 이 앱은 \*\*"볼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뭘 놀려야 할지 모르는 문제"\*\*를 사용자에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.

아래는 탭별, 기능별 상세 진단입니다.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.

## 1. 근본적인 문제: 정보 아키텍처(IA)의 실패

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. 앱의 뼈대가 잘못되었습니다.

- 치명적인 오류: '둘러보기'와 '추천' 탭의 중복
  - '둘러보기'(3p)에는 "요즘 뜨는 영화", "현재 상영중", "장르별" 목록이 있습니다.
  - '추천'(5p)에는 "회원님을 위한 추천", "오늘의 기분" 목록이 있습니다.
  - 질문: 이 두 가지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릅니까? 전부 다 '추천'입니다.
  - 사용자는 "지금 내가 찾는 게 '둘러보기'에 있을까, '추천'에 있을까?"를 고민하게 됩니다. 이건 '넷플릭스 증후군'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, 'CineMind 증후군'을 만드는 꼴입니다.
  - '둘러보기'는 넷플릭스의 UI를, '추천'은 왓챠의 UI를, '홈'은 KOBIS의 UI를 단순히 합쳐놓았습니다. 그 결과, 일관성도 없고 사용자만 혼란스러운 프랑켄슈타인 앱이 되었습니다.
- 핵심 기능의 방치: '감성 추천'이 왜 3 번째 탭에 있나?
  -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, 'AI 감성 큐레이션' (즉, '오늘의 기분')이 왜 3 번째 탭인 '추천' 탭의 중간에 파묻혀 있습니까?
  - 이게 핵심 기능이라면, 사용자가 앱을 켜자마자 보게 되는 '홈' 탭의 최상단에 있어야 합니다.
  - 지금 '홈' 탭(1p)은 그냥 KOBIS 앱입니다. 사용자가 KOBIS를 쓰지, 왜 기능도 부족한 여러분의 앱을 써야 합니까?

=> 진단: 탭 구조 전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. '둘러보기'와 '추천' 탭은 하나로 합병하고, '홈' 탭은 '박스오피스'가 아니라 여러분의 핵심 무기인 '감성 추천'을 전면에 내세우도록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.

## 2. '홈' 탭 (1, 2p): 목적을 상실한 화면

- UI/UX 지적 (정보의 중복):
  - 'TOP 3 일별 관객수'가 막대 차트로 나옵니다.
  - 그리고 바로 아래로 스크롤하면 RANK 1, RANK 2... 가 또 나옵니다.
  - 왜 똑같은 정보를 두 번,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까? 사용자가 봐야 할 정보가 2 배가 되었습니다. TOP 3 차트를 없애고, RANK 1 카드에 왕관 아이콘이라도 붙여주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.
- 기능적 지적 (가치의 부재):
  - 그래서, 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는 게 사용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"아, 이게 1 위구나." 그 다음은요?
  - 이 화면은 사용자의 '넷플릭스 증후군' 해결에 1%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. 오히려 "1 위 영화를 볼까..."라는 또 다른 고민만 안겨줄 뿐입니다. 이 앱의 정체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능이 '홈'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## 3. '둘러보기' 탭 (3, 4p): 영혼 없는 카테고리

- 논리적 지적 (명칭의 모호함):
  - "요즘 뜨는 영화"와 "현재 상영중인 영화"의 차이가 뭡니까?
  - "요즘 뜨는 영화"와 '홈' 탭의 "일별 박스오피스 순위"는 뭐가 다릅니까?
  - 개발자(여러분)는 이 차이를 알겠죠. 백엔드에서 다른 API를 호출했을 테니까요. 하지만 사용자는 전혀 모릅니다. 이건 명백한 기획 실패입니다. 사용자는 "왜 목록이 다 비슷하지?"라고 생각하며 앱을 이탈합니다.
- UI/UX 지적 (무의미한 스크롤):
  - "액션", "코미디", "로맨스"... 모든 영화 앱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.
  - 이걸 가로 스크롤(Carousel)로 보여주는데, 사용자가 이걸 끝까지 넘겨볼까요? 절대 아닙니다. 가로 스크롤은 대부분의 콘텐츠를 숨기는, 사실상 최악의 UI 패턴 중 하나입니다.

=> 진단: '요즘 뜨는', '현재 상영중'처럼 애매한 명칭은 모두 폐기하십시오. '홈' 탭과 합쳐서 "박스오피스 Top 10" 하나로 명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.

## 4. '추천' 탭 (5, 6p): 숨겨진 보물 (혹은 방치된 기능)

- UI/UX 지적 (선택 강요):
  - "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" -> '신나는', '감성적인', '설레는' 버튼이 있습니다.

-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추천 목록이 나옵니다. (6p)
- **질문:** 제 기분은 '우울한'데요? '긴장감 넘치는'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? 왜 여러분이 정해준 3 가지 기분만 선택해야 합니까?
- 이건 '개인화'가 아니라 '선택 강요'입니다. 사용자는 즉시 "내가 원하는 게 없네"라고 느낍니다.
- **기능적 지적 (단절된 추천):**
  - (5p 기준) "회원님을 위한 추천"과 "오늘의 기분" 추천은 완전히 별개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.
  - "회원님을 위한 추천"은 '프로필'의 "나의 영화 취향 분석"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.
  - 지금은 모든 추천 기능이 각 탭에 따로따로 고립되어 있습니다. "기분"과 "내 취향"을 조합해서 "오늘은 '감성적인' 기분이시군요. 회원님의 최애 장르인 '드라마' 중에서 '감성적인' 영화를 추천해 드릴게요."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'AI'고 '큐레이션'입니다. 지금은 그냥 분리된 목록일 뿐입니다.

## 5. '검색' 탭 (7p): 혼란스러운 정보

- **UI/UX 지적 (불필요한 정보):**
  - "프"라고 검색하니 "프레데터: 죽음의 땅"이 나왔습니다.
  - 그런데 왜 여기에 RANK 3라는 정보가 나옵니까? 이건 박스오피스 순위입니다.
  - 만약 제가 1994년작 '쇼생크 탈출'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올 겁니까? RANK 999+?
  - 검색 결과는 검색 결과일 뿐이어야 합니다. 순위 정보가 왜 필요한지,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. 사용자는 "이게 검색 결과라는 거야, 순위라는 거야?" 헷갈리기만 합니다.

## 6. '프로필' 탭 (8-11p): 망가진 보상 시스템

CineMind의 핵심은 \*\*"사용자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'평가'/'찜'을 한다 -> 앱이 '취향 분석'과 '추천'으로 보상한다"\*\*는 순환(Loop)입니다. 지금 이 앱은 이 순환의 '보상'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.

- **치명적인 오류: '평가'와 '찜'의 혼동**
  - '내가 평가한 영화'(8, 9, 10p) 목록이 있습니다. (별점 3점, 5점...)
  - '찜한 영화'(9, 11p) 목록이 있습니다.
  - **왜 사용자가 두 가지 행동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까?**
  - '평가'(Rating)는 "내가 본 영화"에 대한 기록입니다.  
'찜'(Like/Wish)은 "내가 볼 영화"에 대한 기록입니다. 이 둘은 **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.**
  - 그런데 (9p)의 UI를 보면 "내가 평가한 영화"와 "찜한 영화"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는 이 둘의 차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.

- => 진단: '내가 평가한 영화'(별점)와 '보고 싶은 영화'(찜)는 UI/UX 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. 지금처럼 섞어두면 사용자는 "뭘 놀려야 할지" 몰라서 둘 다 안 쓰게 됩니다.
- 핵심 가치의 부재: "나의 영화 취향 분석"의 초라함
  - 사용자가 열심히 별점을 준 '보상'이 고작 (8p)의 "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 2020년대 시네필님"이라는 텍스트 한 줄입니까?
  - 이건 충격적일 정도로 실망스러운 보상입니다. 이 한 줄 보려고 그 귀찮은 별점 평가를 하라고요?
  - '나만의 리포트'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, 이 앱의 핵심 동력은 0입니다. 사용자는 절대로 영화를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.
  - Spotify의 '연말정산'이 왜 성공했는지 벤치마킹하십시오. 시각적으로 화려하고, 공유하고 싶고, "오, 내가 이랬구나"라는 인사이트를 줘야 합니다.
  - "선호 장르: 드라마, 액션, SF" ... 이건 분석이 아니라 단순 통계입니다.
- 미완성된 UI (사소하지만 치명적인):
  - (10p, 11p) 상단에 my-ratings, < (tabs), my-likes 같은 개발용 디버그 텍스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.
  - 이건 학생 작품이 아니라 '미완성 과제'를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. 이 정도의 세부 사항도 확인하지 못하는데, 어떻게 사용자의 복잡한 '감성'을 큐레이션 하겠다는 겁니까?

## 총평 및 핵심 개선 과제

1. 정체성 재획립: 'KOBIS 따라하기'를 멈추십시오. 여러분의 정체성은 '감성 큐레이션'입니다.
2. 과감한 삭제와 통합:
  - '둘러보기' 탭과 '추천' 탭을 '추천'으로 합병하십시오.
  - '홈' 탭에서 '박스오피스' 기능을 제거하거나, '추천' 탭의 하위 기능으로 격하시키십시오.
  - 새로운 '홈' 탭은 "오늘 기분이 어떤세요?"라는 '감성 큐레이션'이 되어야 합니다. (이게 이 앱의 존재 이유입니다.)
3. 보상 시스템 전면 재설계:
  - '프로필'의 "취향 분석"을 텍스트 한 줄이 아닌, 공유하고 싶은 '인포그래픽 리포트' 수준으로 기획해야 합니다. 이것이 실패하면 앱의 핵심 동력이 사라집니다.
4. UX 용어 정리:
  - '평가한 영화'(본 것)와 '찜한 영화'(볼 것)의 개념과 UI를 명확히 분리하십시오.
  - "요즘 뜨는", "현재 상영중" 같은 모호한 카테고리 명칭을 사용자가 헷갈리지 않게 전부 수정하십시오.

지금 당장 코딩을 멈추고, 팀원들과 함께 이 기획서(진단서)를 보면서 서비스의 '흐름(Flow)'부터 다시 그리십시오. 지금은 기능을 100개 넣는 것보다,

흔란스러운 기능 99 개를 지우고 단 하나의 핵심 기능(감성 추천)을 완벽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.